

# 지혜의 말씀

불기 2564년 6월 / 통권 472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 證道歌 (증도가)

혹시혹비인불식  
或是或非人不識하고

역행순행천막측  
逆行順行天莫測이라

움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니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바로 가기도 하니 하늘도 알지 못한다.

오조증경다겁수  
吾早曾經多劫修라  
불시등한상광혹  
不是等閑相誑惑이라

나는 일찍이 수많은 세월을 수행했다.

부질없이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 목 차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팔관재계 / 운성스님

###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말씀 · 10

### 알림마당 · 14

대광사 6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백중기도(영가 합동천도재)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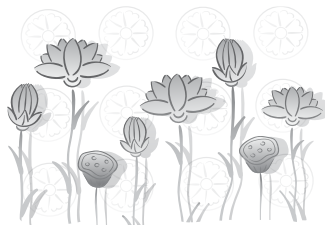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 주 간 / 이숙경

####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팔관재계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신라인들과 고려인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부처님 가르치심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삶의 기둥을 삼고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그로 인해 매우 높은 정신문화를 향유하며 상하가 하나되어 세계사에 없는 천년과 오백년의 긴 역사를 창출했다.

그들은 여러 불교 문화를 국가 문화로 승화하고 발전시켰는데 그 중 팔관재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했다.

팔관재계는 불자가 지키며 살아야 할 맑고 깨끗한 여덟 가지 생활을 말한다. 죽이지 마라, 빼앗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꽃과 향유 바르지 말고, 노래하지 말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마라, 때아닌 때에 먹지 마라 등이다.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생활 규칙은 반듯이 있어야 한다. 서로 해가 되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되는 피차 편하고 좋은 사이가 되기 위

해서다. 마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가 조건을 지켜야 하듯이 말이다.

신라인들이나 고려인들은 부처님의 여덟 가지 생활 규칙을 그들 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적극 재계를 익히고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팔관재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여덟 계율을 일상 실천한다는 것은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적극 실천해서 불자다운 생활을 해보게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건이 어려운 신도들이 실천해 볼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생각 된다.

올해의 대광사 윤달 행사는 예수재를 지내지 않고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 실천행인 ‘팔관재’를 현대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가르침 속으로 한 발이라도 더 들여놓게 해 보려고 한다. 하루라도 가르침대로 살아보는 체험을 하자는 것이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절에 와서 예불 송경을 드리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절대로 진실만을 말하고, 이웃을 위해 도움 되는 일을 하고, 매일 500원의 공양금을 올리고, 매일 500원 보시를 베풀고, 절대로 술을 먹지 말고, 절대로 살생하지 말 것』으로 정했다.

계율은 ‘남에게 해가 되고 내게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란 말이다.

생각은 있어도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계행이며 선행이다. 그래서 날을 정하고 사례를 정해서 혼자서가 아닌 여럿의 기운으로 실천력을 기르려는 것이다. 실천이 없는 말은 스피커에서 새 나

오는 잡음에 불과하다.

팔재계 실천요령은 아래와 같다.

- 1, 재일에 꼭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다라니 7독 한다. (수행)
- 2, 그날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계행)
- 3, 그날은 절대 화내지 않는다. (인욕)
- 4, 그날은 절대로 진실만을 말한다. (지혜)
- 5,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한 번 꼭 한다. (선행)
- 6, 매일 500원을 불전에 공양 드린다.  
매일 500원을 가난한 이에게 보시한다. (공덕)
- 7, 그날은 절대 술을 먹지 않는다. (청정)
- 8, 그날은 절대 살생하지 않는다. (자비)

재(齋)는 깨끗이 한다는 뜻의 한문 글이다.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다. 계(戒)는 불타게서 정해주신 생활 규칙을 의미하는 한문 글이다. 재계(齋戒)를 지킴으로 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다.

재계를 지켜 더없이 맑아진 깨끗한 몸으로 예불 드리고 송경하면 공덕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비로워진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하면 코로나19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 4. 수행과 열반

### 2) 업과 인과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六師外道)의 사상가들은 대개 운명론을 주장하거나 쾌락과 향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쾌락주의를 가르쳤다. 부처님은 이런 주장을 비판하시거나, 이들의 가르침이 가져올 윤리적 패해를 경계하셨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틈에 들어가 숨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곳 없나니,

(법구경) (제9 악행품(惡行品))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행위도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며,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허허벌판 한가운데서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 ‘선인선과(善人禪果) 악인 악과(惡因惡果)’ 혹은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人苦果)’의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업(業)이라 한다. 업은 찐스끄리뜨어 까르마, 팔리어 감마에서 나온 말로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에는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 말로 짓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짓는 의업(意業)이 있다. 우리는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업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은 밖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습과, 성격, 성품까지 포함한다.

부처님은 절대자의 서리나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고,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자신의 의지나 행동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다. 설령 자신의 의지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출신이나 삶의 조건조차도 사실은 모두 자신의 업에 따른 과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은 운명론이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앞날을 개척하는 것도 업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에 구속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원력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도와 마음, 원력을 통해서 자신 업을 바꾸어 나갈수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과보를 낳은 악업의 원인은 무엇인





가? 그것은 바로 미혹(迷惑)이다. 번뇌에 물들어 진리에 어둡고 마음이 흐려져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과보를 받는 것이다.

반대로 진리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은 선업을 낳고, 그 결과 선한과보를 받는다. 진리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을 보리심(菩提心)이라 한다.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로이다. 전생이나 과거에 길든 나쁜습성과 잘못된 행동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정으로 참회하고 바로 수행하면 깨달음을 이룰수 있는 것이다.

몸(身) 과 입(口)과 뜻(意)으로 짓는, 즉 삼업(三業)의 과보는 매우 업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것을 인과율(因果律)이라고 한다. 악업을 많이 지을수록 자신의 삶은 구속받고 고통스러워진다.

혹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장 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원인이나 악한 원인을 심었지만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의 결과가 금방 나타날수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걸쳐 전개 되기도 한다.



## 제3품 큰 법문의 품 [Maha-Vagga]

### 5. 마가의 경

15.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십시오. 어떠한 떨감에서도 불이 생겨나듯 비천한 가문에서도 지혜로운 성자, 고귀하고 부끄러움으로 자제하는 자가 있게 됩니다.
16. 진리로 길들여지고 감관의 제어를 갖추고 지혜에 통달하고 청정한 삶을 이룬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바라문이라면, 올바른 때에 공양 받을 만한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7.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집없이 거닐고, 자기를 다스리고, 베틀의 북처럼 곧은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바라문이라면, 올바른 때에 공양 받을 만한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8. 달이 라후의 장애에서 벗어나듯, 감관을 잘 다스려서 탐욕을 떠난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바라문이라면, 올바른 때에 공양 받을 만한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9. 집착없이, 항상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거니는 사람들, 공덕을 기대하는 바라문이라면, 올바른 때에 공양 받을 만한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20. 모든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이겨내어,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알고 시원하고 맑은 호수처럼,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였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1. 같은 님들과는 같고, 같지 않은 님들과는 거리가 있는, 이렇게 오신 님은 한량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때가 묻지 않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2. 그는 허위나 독단을 지니지 않고, 탐욕을 떠나고, 내 것을 두지 않고, 바램을 떠나고, 분노를 몰아내고, 자아를 소멸시키고, 슬픔의 때를 제거한 바라문이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3. 마음이 거처를 제거하여 어떠한 소유도 갖지 않으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나 집착이 없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4. 삼매에 들어 거센 물결을 건너지고, 가장 뛰어난 견해로써 진리를 알고, 번뇌가 부수어져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5. 존재의 번뇌와 거친 언어는 흩어져서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 지혜에 통달하고 모든 것에 해탈하였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6. 집착을 뛰어넘어 그에게는 집착이 없고, 자만에 얽매인 자들 가운데 자만에 매이지 않고, 괴로움에 대하여 그 영역과 기반을 잘 아나,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7. 욕망에 기대지 않고 멀리 떠남을 보고, 남들이 가르치는 견해를 초월하여, 다시 태어나게 될 아무런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8. 높고 낮은 현상들을 깨달아 그것들을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여, 적멸을 성취하고 집착을 부수고 해탈하였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29. 장애와 태어남이 소멸하는 궁극을 보고, 탐욕의 길을 남김없이 제거하여 잘못없이 티끌없이 오염없이 청정하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30. 자기에게서 자아를 보지 않고, 집중되고, 곧바르고, 확립되어, 동요가 없고, 황무지가 없고, 의혹이 없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31. 그에게는 어떠한 것에도 어리석음이 없고, 그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앎과 봄을 지니고, 최후의 몸을 가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처럼 최상의 청정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현과를 받을 만합니다.
32. [쑤다리카] “당신과 같은 지혜에 뛰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제물은 참다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하느님으로 저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저의 현과를 받아주십시오.”



## ☉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 ◇ 6월 6일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6월 12~13일 봉정암 참배 (1박2일)  
오전 5시 진해역·동참금 10만원
- ◇ 6월 15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6시 30분 대웅전
- ◇ 6월 21일 음력 5월 초하루기도 입재
- ◇ 6월 23일 초하루기도 호향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백중기도(영가 합동천도재) 안내

- 입재 : 7월 16일 오전 10시 설법전
- 초재 ~ 6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막재(우란분절) : 9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설법전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고맙습니다

## 대광후원회

(4.18 ~ 5.15)

김경남 20,000	손보미 10,000	박미애 10,000	찬불단 50,000
홍기준 20,000	변창인 20,000	김지현 50,000	강 란 10,000
정진이 10,000	정대식 30,000	오현철 20,000	유미란 50,000
(주) 카텍 300,000	이경화 10,000	조한분 25,000	서경스님 50,000
조권일 100,000	공상섭 30,000	김병문 20,000	대광사 10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조한분 25,000 서경스님 50,000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